

건강백서 ⑥

귀는 얼굴의 양옆으로 붙어 있어 앞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듣게끔 설계 되어있는 감각기관이다. 훗날 안경을 쓰게될 줄 알고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잠으로 적당한 위치에 존재한다. 귀바퀴가 앞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참 다양한 일이다.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약간 약하게 수용되므로 소리만 듣고 수음감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짐작 되어진다. 귀는 해부학적으로 이개(耳介) 또는 외이륜(外耳輪=귀바퀴)에서 이도(耳道)를 거쳐 고막(鼓膜) 막까지를 외이(外耳)라

말을 통해서 받아진 진동은 중이속에 있는 이소골을 통해 내이의 와우에 전달 증폭되어 소리를 감각하는 청신경을 통해 뇌에 있는 청각중추로 전달된다. 또 골전도를 통해 직접 내이 골반규편으로 전달되어 청각기능을 도와준다. 그러므로 우선 고막까지의 통로가 소리 전달에 장애가 되지 않게 되어야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된다. 외부로부터의 충격중 따귀를 맞는다든지 귀지를 후발적으로 당할 수 있는 직접손상, 폭발음, 공기파열음, 지나치게 크게 하를할 때의 악관절손상, 비행이나 고공상승 등 고막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귀지제거·고공비행
하를할 때 고막
손상안되게 주의**



한다. 고막 안에서부터 이소골(耳小骨), 이관(耳管), 전정장(前庭窓)까지를 중이(中耳)라 하며, 전정(前庭), 규관(規窓), 와우(蝸牛=달팽이관) 및 와우신경(蝸牛神經) 연결부까지를 내이(內耳)라 한다. 특히 전정은 위치각기(位置覺器)로서 또 반규관(半規管)의 편대부(膨大部)는 운동각기(運動覺器)로서 제각기 평형감각을 관장하는 중요한 부분들이다. 외부의 소리는 귀바퀴에서 모아져 음파로서 이도를 통하여 고막을 울려주게 된다. 고

너무 많다. 평소 생활에서 주의와 올바른 기초 의학지식을 통해 예방과 안전에 유의하여 타고난 청력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목욕중에 물이 들어간 것을 철저히 닦아내지 않았거나 귀지 제거를 한다고 잘못 만져서 외이도에 상처가 나서 소진이 생기거나 이부(耳膜=분비물)가 나오며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윤 율 상 (한의학 박사)

소중한 만남 ②

살아갈 아무런 의욕도 의미도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야말로 지옥이었습니. 다 놓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겐 또 다른 한 아이도 함께 키워야 할 의무가 있었으니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었지요.

살아 지칠대로 지친 자에게 오래 전부터 불교를 믿었던 인나는 아주 조심스레 불교에 귀의할 것을 권해왔습니다. 고지식하고 융통성없는 저로서는 다니던 성당을 외면하고 개종을 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 마음의 위안을 받을 곳을 어디에서든 찾을 수 없었던 저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까지 된 어떤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과라면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스러웠습니.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본사 사장상〉



그림·이준석

**“저는 지칠대로 지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언니의 권유로 개종을 하고 절에 나가니
스님은 ‘아이를 스승으로 삼으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이 이 아이를 키울만한 부모를 찾다가 우리에게 내려 준 소중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지만 신으로부터 아이를 키울만한 자격이 있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말은 일단은 귀찮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말일에도 의심이 서늘스레 풀리질 않고 괜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 언니가 쉽게 설명해주는 불교교리도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불교를 알면 의문도 풀리려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마음의 갈등을 일단 접어두고 언니를 따라 절에 가보았습니다.

고스넨한 분위기는 좋았지만 신장도 무섭게만 느껴지고 모든 것이 익숙치 않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괜히 모르게 혼자서 또 그곳을 갔습니. 절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빌당계 앉아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했습니다. 부처님이 편지 푸르고 좋았습니. 상처부성인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풀어 주실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느껴보는 고통이 풀려서 마냥 혼자서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조용히 다가 오셨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무엇이 이끌리듯 거의 매일 절에 나왔습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다 른 사람을 따라 절을 하면서 무언지 모를 눈물을 한없이 한없이 흘렸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서러움에 겨워서, 말이 불행해서 풀리는 눈물이었겠지요. 또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단연히 참회하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리없이 살 것 몰고나면 가슴 속이 후련했습니다. 아마도 일종의 카타르시스였나 봅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는 열살을 넘었습니다. 자신의 불만, 갈등, 고

민 등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부적응 상태는 계속되고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짜증이 심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특수학교로 전학을 시켰습니.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절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들었습니다. 우선은 필가 알고난 후에 비교 선택을 하더라도 그때가서 하리라 하며. 불교는 세속과는 멀고 접하기 어려운 철학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그렇게 가깝고도 깊숙히 불교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종교인지 예견엔 미처 몰랐습니. 부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며 삶의 지표였습니다. 가르침을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나도 부처가 될 수

◆ We ask (thee), Gotama, about a man that suffers loss ; having come to ask, Bhagavat, (tell us) w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90)
“저희는 파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타마께 여쭙어보겠습니다. 파멸에 이르는 문은 어떤 것입니까? 스승께 그것을 묻고자 이렇게 찾아 왔습니.”
◆ Bhagavat : The winner is easily known, easily known (is also) the loser ; he who loves Dhamma is the winner, he who hates Dhamma is the loser.’ (91)
스승은 대답하셨습니다. “번영하는 사람도 알아 보기 쉽고, 파멸도 알아보기 쉽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망한다.”
◆ Dely : We know this to be so, this is the first loser ; tell (us) the second, O Bhagavat, w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92)
“잘 알겠습니다. 율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②

찾게 파멸입니다. 스승님, 둘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 Bhagavat : Wicked men are dear to him, he does not do anything that is dear to the good, he approves of the Dhamma of the wicked, -t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93)
“나쁜 사람을 가까이하고 착한 사람을 멀리 하며, 나쁜 사람이 하는 일을 좋아하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 Dely : We know this to be so, this is the second loser ; tell us the third, O Bhagavat, w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94)
“잘 알겠습니다. 율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둘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셋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 a man that suffers loss 파멸(파멸)한 사람
* cause 이유 (여기서는 의역해 ‘문’)
* approve 옳다고 인정하다, 찬성하다
* wicked 사악한 나쁜
오종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해외불교문화**
다이제스트

고행자 ⑩
타고르 작

책3장
(고행자는 산길 중간 돌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인다. 한 폭동이 노래부르며 그 옆을 지나간다.)
(노래)
얼굴을 돌리지 말아요, 내 사랑
본은 그 가슴을 숨두리채 열고
꽃들은 어둠 속 비밀을 속삭이네.

술 속 나무잎들의 속삭임은 한 밤의 흐느낌처럼 하늘을 질러 다시오느니,
오라 사랑이여,
내게 내 얼굴 모습을 보여주렴.
고행자 생각한다. 언젠가 단 한 번 이와 비슷한 저녁이 내 살아온 지난 날 가운데 있었던 듯 하구나. 그때 해질녘의 작은 사랑과 음악으로 가득차 있었고 나는 누군가와 같이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의 기억은 해질녘 저가는 별 속에 있구나. 그러나 내 어린 소녀는 어디 있을까. 눈물 가득히 고인 슬픈 그녀의 눈망울의 그 가련한 소녀는? 그녀의 오두막집 밖에 앉아 해질녘의 끝없는 외로움 가운데서 그 같은 발을 바라보며 거기 앉아 있을까?
(누더기 옷을 걸친 소녀가 들어 온다.)
소녀 당신은 누구십니까?
고행자 나는 고행자이다. 네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게 이야기 해다오 아버지를 너는 사랑하냐?
소녀 그렇듯 말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재계는 아버밖에 없어요.



그림 심민섭

“사랑은 진리를 깨닫게 한다...소녀는 결코 죽을 수 없지”

고행자 말했다. 네 작은 손을 좀 주어보려. 내 손 안에 잡고 있게 하라. 나의 이 행복한 손 안에...
소녀 이제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고행자 어디로?
소녀 숲으로 가는 길이지요. 그곳에서 아버지가 저를 만나지 못하

면 영영 저를 잃어버릴 거예요.
책4장
(고행자가 마을 오솔길에 있다.)
고행자 나는 고행자의 명서를 버려라. 너의 지팡이를 꺾어버리고 나의 바루도 깨뜨려 버려라. 시간의 바다를 건너가는 이 세상이라는 담당한 배여, 다시 한번 나를 거기 태어라석승이여, 그는 자기자신 홀로 헤엄쳐가는 것에서 안전함을 찾으려 원했고, 또한 자신의 개종발려의 희미한 빛을 의지하여 길을 찾아가려고 태양과 별빛들을 포기했었다. 새는 하늘에 날지만 공기가 없는 빈 하늘엔 날아가지 않고 끝내는 이 대지로 떨어온다. 나는 자유다. 나는 부정(否定)의 보이지 않는 죄사슬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형태 가운데, 육적 가운데서 해방되었다. 유한함은 바로 진정한 무한이며 사랑은 바로 진리를 깨닫게 한다.
형제여, 당신은 라구후의 딸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오?
아이야마 라구후의 딸이라니요. 그녀는 죽었지요.
고행자 아냐, 그 소녀는 죽을 수 없어. 아니지 아냐!
아이야마 하나 당신께 그 아이의 죽음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고행자여?
고행자 나에게 뿐만이 아니요. 이는 모든 우리에게 대한 죽음이란 말이요.
아이야마 나는 당신을 알 수 없군요.
고행자 그 소녀는 결코 죽을 수 없지...

생활속의 불교 ⑥

하루 밥 갈지 않겠거든 먹지도 말라

일일부작 백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 - 농부가 농사일에 하루 일을 쉬면 백일 동안의 양식을 잃는다는 뜻이다. 단 하루의 게으름·방일(放逸)로 적당 열흘 배를 곯아야 한다니 농사 일이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관혼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야말로 정진을 이룸이다.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 - 백장청규(百丈淸規)로 유명한 화해(懷海) 선사의 가르침이다. 수행자라 할지라도 부지런히 하루 일하지 않았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뜻이다. 서술 시편인 길날 같은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탁발에 나섰다가 마침 농사 준비를 하던 한 바라문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나는 해마다 밭 갈고 씨 뿌려 내가 먹을 양식을 마련하고 있소. 당신도 스스로 씨 뿌려 먹을 양식을 구하지 않겠소?”
이 바라문은 부처님께 일일부작이

거든 일일불식하시라고 중 주먹을 들이던 셈이다.
부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다. 나도 밭 갈고 씨 뿌려 먹을 것을 얻고 있노라.’ 하셨다.
아 할경에 좀더 자세한 말씀의 기록이 있다.
질문은 내가 뿌리는 씨
저는 내가 밭을 가는 모습
나는 신·구·외로
나날이 악업을 제어하니
그것은 내가 밭에서 김 매는 것
내가 오는 소는 경진이나...(중략)
나는 이렇게 밭 갈고 이렇게 씨 뿌려
김매의 열매를 거두노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바라문의 밭은 땅이었지만 부처님의 밭은 중생의 마음이었음이다.



중생은 나날이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업을 짓는다. 더욱이 생각은 참나에도 수백 번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니 신·구·의 삼업을 이루 다 말하기 어려운 만큼 쌓이고 쌓인다. 그 중에 또 악업은 얼마일까?
부처님께서 “나는 신·구·외로 나날이 악업을 제어하니” 하셨다. 이는 쌓임이 아니라 덜어 냄이요, 덜어 낼일전대 어찌 갈로의 열매가 없을 것인가. 그야말로 농부의 밭 가는 일. 씨 뿌리는 일을 빗대어 일일부작 일일불식을 말할 처지가 아닌 것이다.
불 자라면 누구나 모를지기 마음의 일일부작 일일불식을 실천해야 한다. 일상의 근로에서도 방일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마음의 밭을 가는 일에 있어서만은 단 하루, 아니 잠시도 방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루 24시간의 모든 활동 - 일하고 사람 만나고, 말하고 움직이고, 밥 먹고 잠자는 일에서까지 게으름을 피워

서는 안 된다.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얻고자 할 때에 불이 불기도 전에 문지르기를 그만 두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마을 공부하는 무슨 학문을 전공하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마을 공부는 한시도 끊어질 수 없고 끊어져서도 안 되는 공부이다. 마음이란 풀이 놓으면 참나간에도 수많은 업을 짓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날뛰는 원숭이여 비유했는가.
우리는 수행하기 위해 태어났고 수행하기 위해 살고 있다. 하루 24시간 부지런히 마음 밭을 갈아 갈로의 열매를 따자. 나를 회복하자. 대자유인이 되자.
일일부작이거든 일일불식하라.
협찬: 윤태원